

ACI Monthly Newsletter

September 2024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I. In-depth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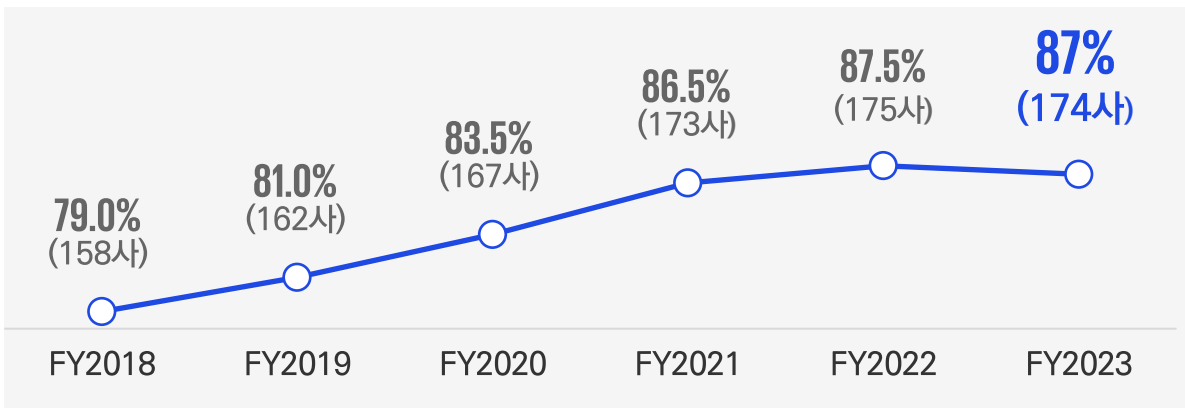
FY2023 KOSPI200 감사위원회 활동 분석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FY2023 사업보고서를 통해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01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비중

- KOSPI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FY2023의 경우 전년과 유사함
 -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52개사 중 27개사(51.9%)가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함*



02 감사위원회 규모와 다양성

- 감사위원회 규모는 평균 3.4명으로 조사되었음
-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 이사회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체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중이 지속 상승

▶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의 비중

22% → 25.7% → 29.9%
 FY2021 FY2022 FY2023

▶ 전체 KOSPI200 감사위원 중 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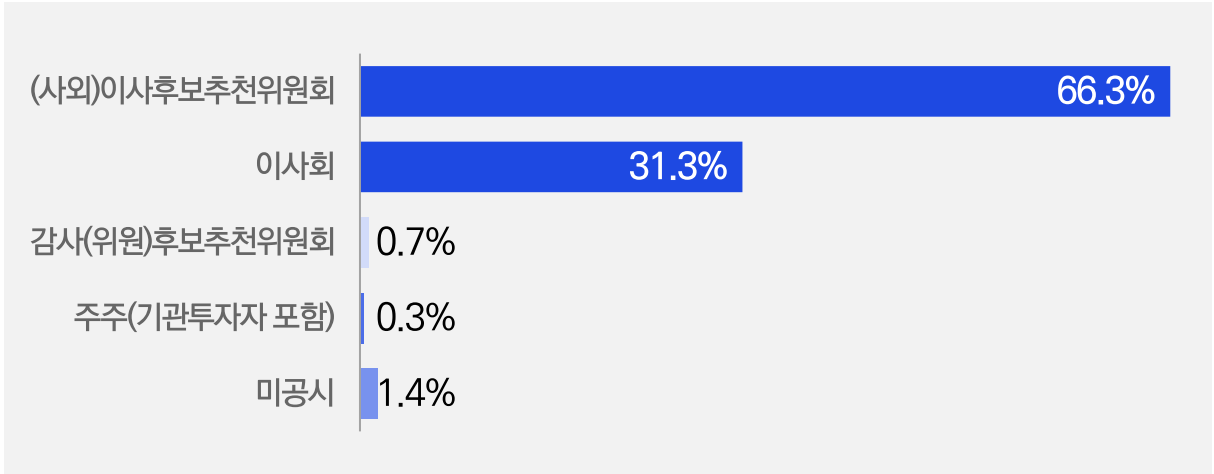
10% → 16.9% → 20.2%
 FY2021 FY2022 FY2023

감사위원회 규모	기업 수	비중
3명	122	70.1%
4명	43	24.7%
5명	7	4%
6명	2	1.2%
계	174	100%

* 다만,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148개사 중 1개사는 중소기업은행법 제24조에 의거해 감사 1인을 두고 있음

03 감사위원 추천인

- 감사위원 추천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상법 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요건 준수 시 ‘사외이사/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

04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

- 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평균적으로 1.25명 보유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호 유형: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연구원·조교수 이상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음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유형		비중
1호 유형	회계사/5년 이상	25.7%
2호 유형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연구원·조교수 이상 5년 이상	37.35%
3호 유형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 /임원 5년 이상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4.42%
4호 유형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5년 이상	32.53%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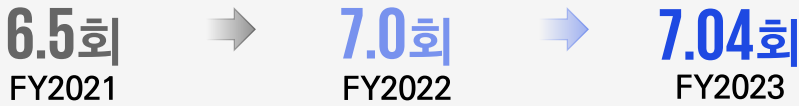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권고함”

감사위원회 운영

05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 연간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평균 7.04회로 지난 3개년간 지속 상승

▶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



06 감사위원회 안건 수

- 연간 회의에서 다룬 안건의 평균 수는 2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 수록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수도 많은 경향

▶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수



▶ FY2023 자산규모별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수

구분	평균 안건 수
2조 원 이상	21.38건
2조 원 미만	12.44건

07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회사의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횟수는 평균 3.1회인 것으로 조사됨
 - ▶ 대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2.6회, 서면 커뮤니케이션 평균 0.3회, 기타(화상) 커뮤니케이션 평균 0.2회
- 핵심감사사항(KAM)을 논의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1.04회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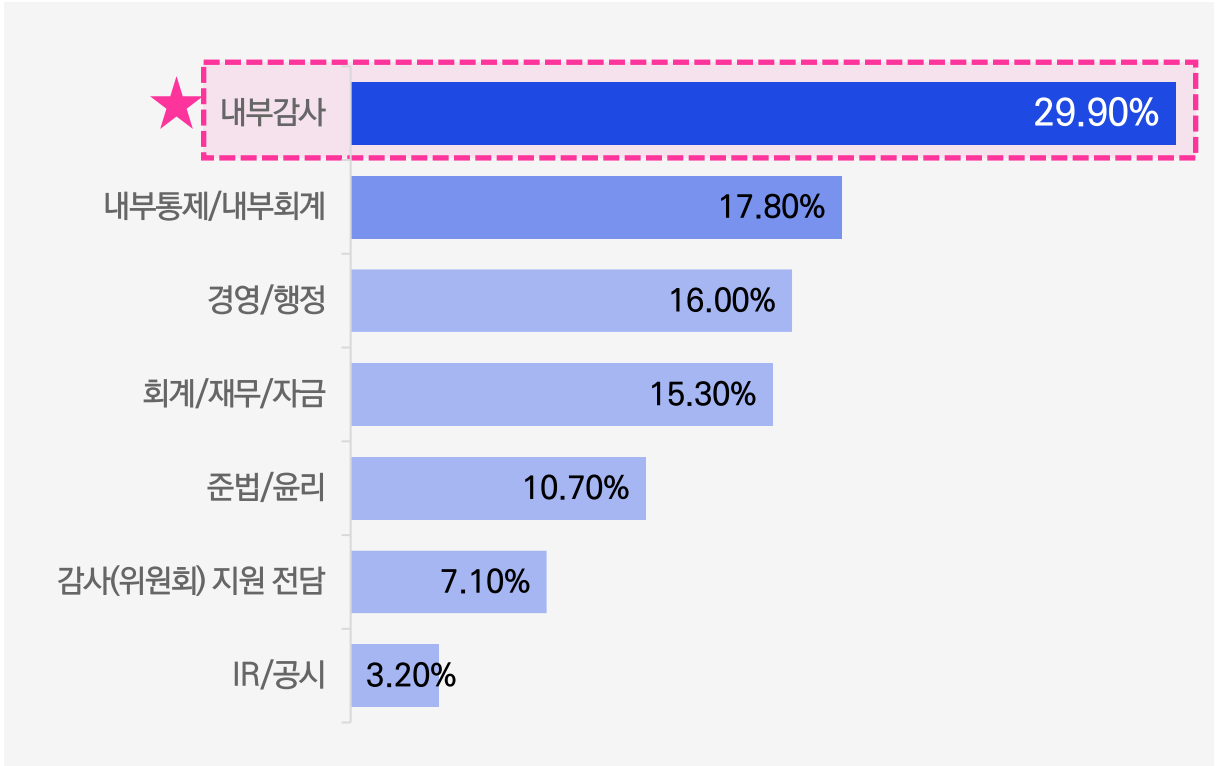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감사품질의 관계*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1년에 4번 이상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경우 감사품질이 향상
 - ▶ 특히, 서면보다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인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24년 3월)

08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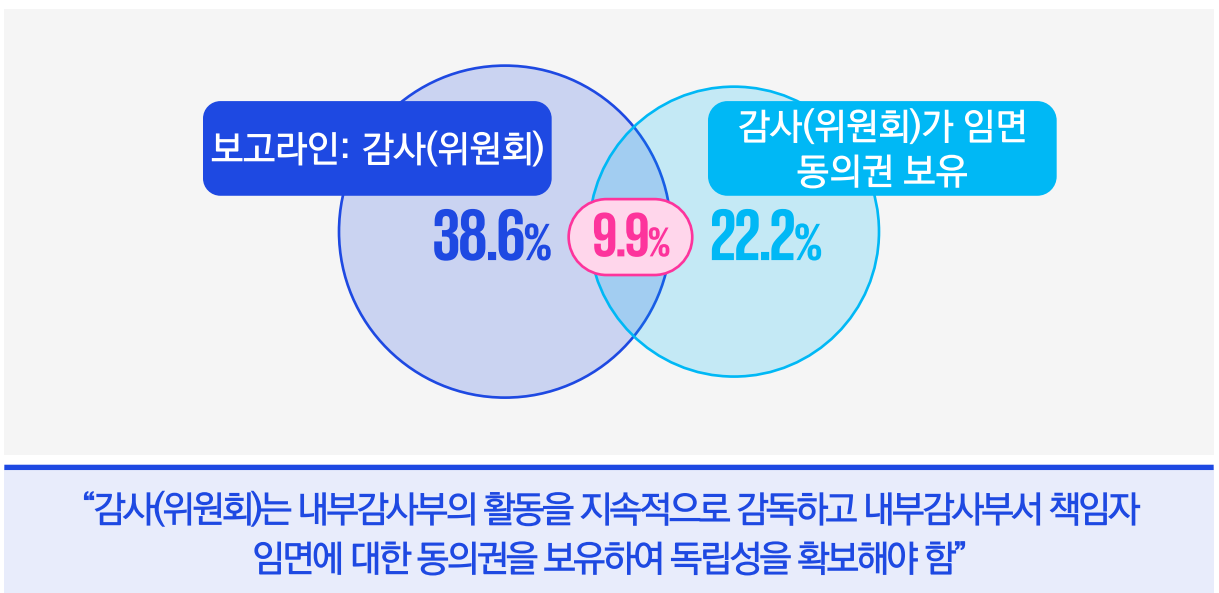
- 감사위원 지원조직의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감사부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내부통제/내부회계부서가 뒤를 이었음



09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 및 임면동의권

-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존재한다고 공시한 경우,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과 신분 보장 방안을 살펴봄
 -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임면동의권도 보유한 경우는 9.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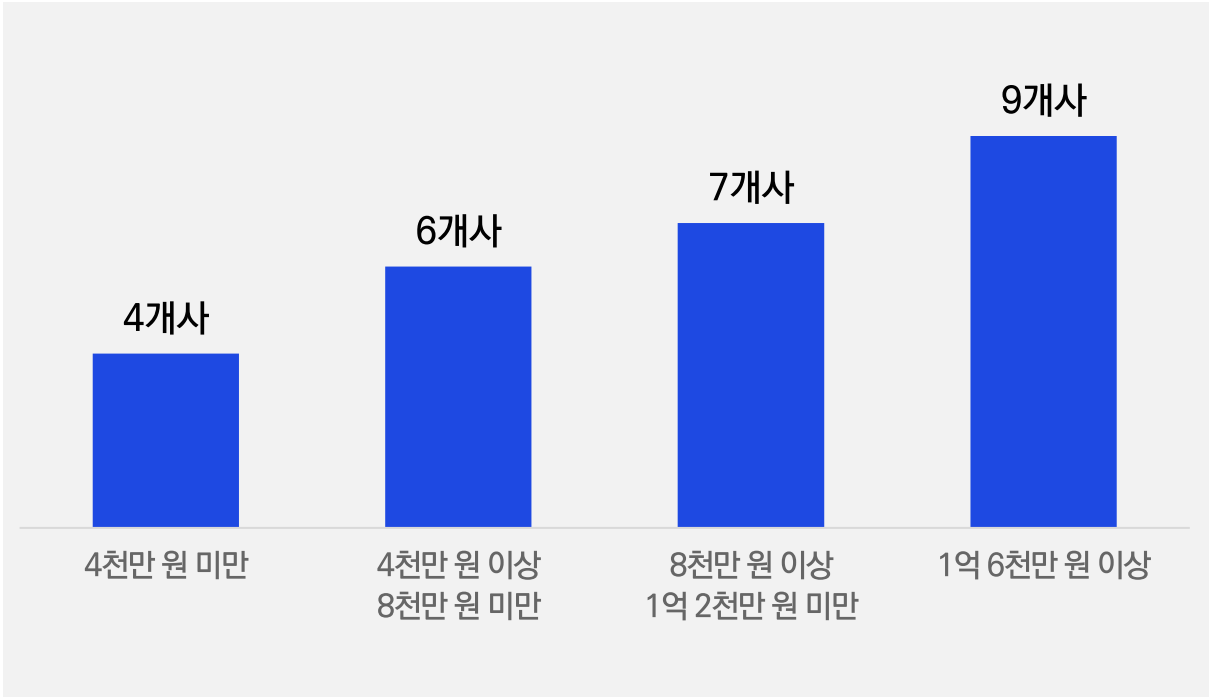
▶ 내부감사부서 설치 기업



감사(위원)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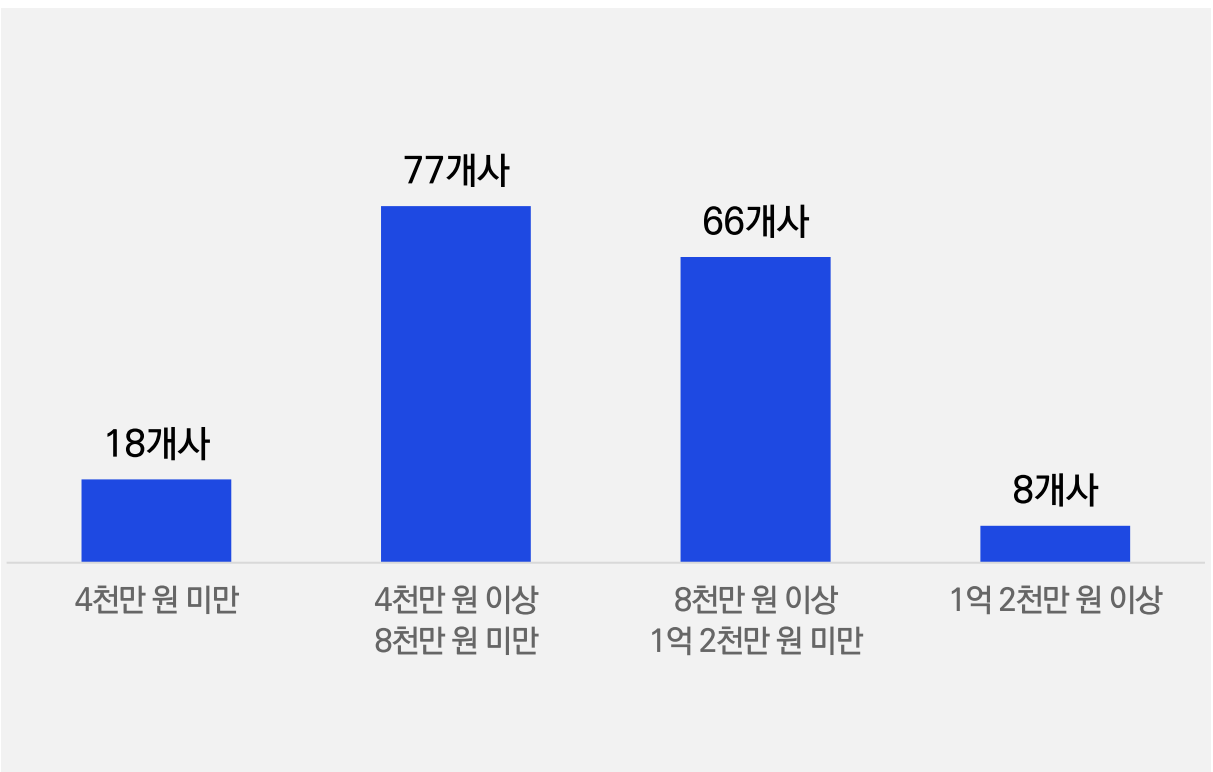
10 감사 보수

- 감사의 평균 보수는 1억 2,234만원으로 집계되었음



11 감사위원 보수

-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7,500만원으로 집계되었음*



(*) 사업보고서 상의 감사위원 보수합계를 토대로 평균을 구한 것임

감사위원회의 활동 점검 포인트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4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에 유용하며
감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의 감사위원회 운영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원조직은 필수적입니다.
재임 중인 회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이나
평가권을 보유하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연간 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각 활동별로 예상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서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영진 배석 없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정훈 | ACI 상무이사
E. jshim@kr.kpmg.com

II. Law & Regulation

▶ 보도자료

01_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2024.8. 8]

-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①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②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발표1>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 ✓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성 강조
- <발표2>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 사례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
 - ✓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보도자료

02_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4.8.12]

- 금융위원장은 밸류업 공시 기업을 포함한 8개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현장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
 - ✓ 증시의 체질개선과 “부채중심 → 자본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가 중요
 - ✓ 금투세 폐지, 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 ✓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 참석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힘

▶ 보도자료

03_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 2024.8.28]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
-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을 소개
- 금년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에서 희망 시 산업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임



III. Expert Reports

▶ 다운로드

저출생, 고령화 인구 대변혁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
- 위기이자 기회인 인구 대변혁 시대를 맞아 기업이 주목해야 할 23개의 유망 섹터를 도출
-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14개의 기업 경영 트렌드를 제시

KPMG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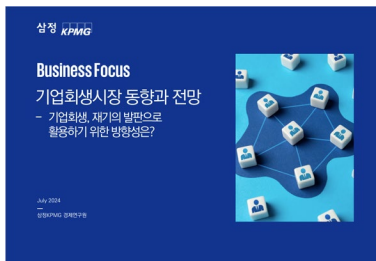
* 보고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01



잠들지 않는 디지털 혁신,
슬립테크의 부상

02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03



Anchoring ESG in governance

AUDIT COMMITTEE HANDBOOK 2023 4th Edition

감사위원회 핸드북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감사위원회 핸드북 열람 방법

삼성KPMG 아카데미 ▶ 정규 교육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과정
▶ 감사위원회 핸드북

▶ 핸드북 보러가기





Ch 삼정KPMG ACI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로 **삼정KPMG ACI**를 친구로 추가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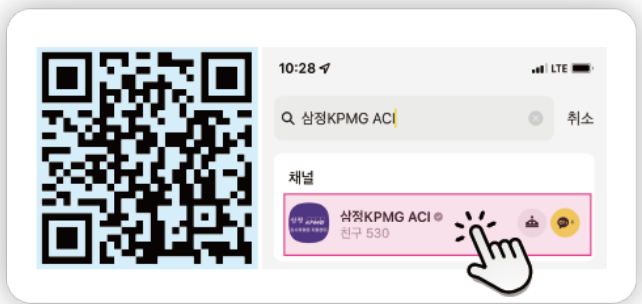
채팅방 하단 메뉴 중 'Q&A'버튼을 통해 문의사항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삼정KPMG ACI의 뉴스레터, 발간물, 영상 등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간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 하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정KPMG ACI'를 검색 해보세요!



Contact us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김민규
부대표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심정훈
상무
T. 02-2112-0338
E. jshim@kr.kpmg.com

이민형
이사
T. 02-2112-7854
E. minhyunglee@kr.kpmg.com

노유경
책임연구원
T. 02-2112-7883
E. youkyunglo@kr.kpmg.com

민경석
책임연구원
T. 02-2112-4292
E. kyeongseokmin@kr.kpmg.com

김다슬
선임연구원
T. 02-2112-3305
E. daseulkim@kr.kpmg.com

박수진
연구원
T. 02-2112-7728
E. spark153@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